

# WTO, DDA 협상 끝내 결렬

(세계무역기구) (도하라운드)

## 5년만에...라미 사무총장 "진전없다...협상중단" 선언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DDA) 협상 전체가 결렬됐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24일 오후(현지시간) 무역협상위원회(TNC) 비공식 회의를 열어 조건이 성숙하고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협상을 중단(suspend)할 수 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라미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서방선진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위임을 받아 일요일인 23일 14시간 진행된 G6 각료회의와 24일 재개된 협상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G6 각료회의에서 EU와 브라질, 인도, 일본, 호주 등 5개국은 농업 시장접근(관세감축)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분야에서 신축성을 보일 의지를 표명했으나, 미국이 농업 국내보조 분야에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DDA 협상이 중단되게 됐다.

피터 만델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이 다른 파트너들이 제시한 신축성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다"며 협상결렬의 책임을 미국측에 돌렸다.

카말 나스 인도 통상장관은 "EU가 양보안을 내놓고 한 나라를 제외하고 모두 테이블에 무었인 것을 내놓았다"고 미국을 겨냥했다.

라미 총장은 회의에서 "슬프지만 진실을 얘기할 수 밖에 없다"며 "농업 시장접근과 국내보조 분야에서 주요국들의 입장이 너무 차이가 나서 서로 껍을 메우기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라미 총장은 "이제는 시간이 다 찼으며 앞으

로 취해야 할 조치와 관련해 우선 DDA 협상 전체를 중단하고 각 회원국들은 협상 과정을 재검토하고 앞으로 가능한 선택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이제 공은 여러분들의 코트로 넘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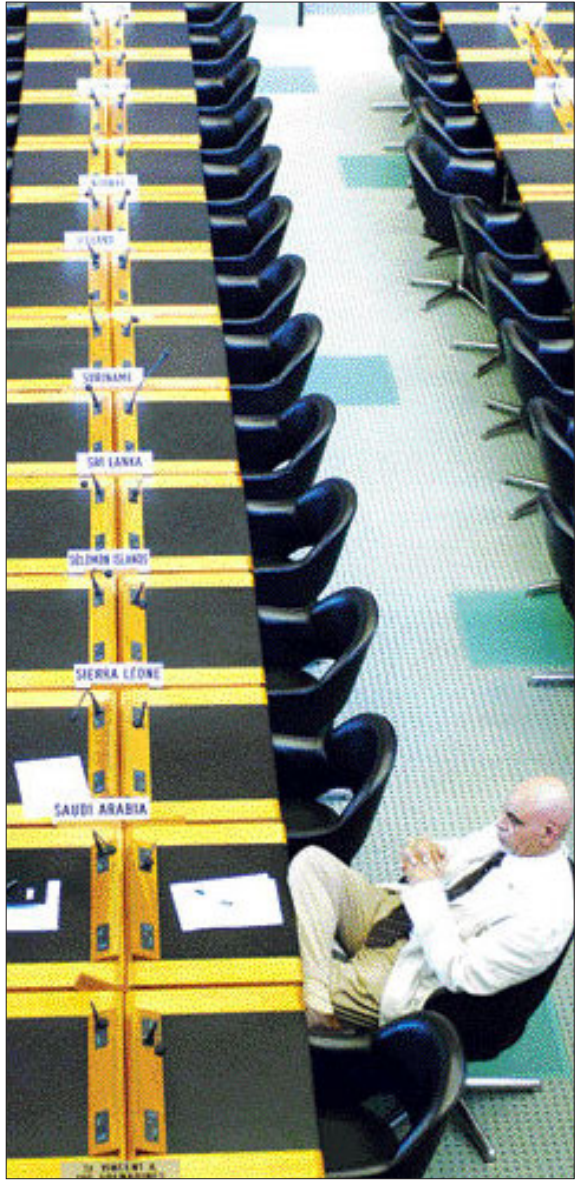
이에 따라 농업과 공산품, 서비스를 포함해 모든 협상그룹의 작업들도 전면 중단되게 됐으며,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G6 각료회의도 무산됐다. 이와 함께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순수입국 그룹(G10) 각료회의도 취소됐다.

이로써 세계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2001년 출범한 DDA 협상이 5년 가까이 표류해온 끝에 극적인 돌파구를 열기 위한 추가 시도가 언제 가능할 지 접지기 어려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나스 인도 통상장관은 이날 협상이 결렬된 후 기자들에게 "협상이 중단됐다"면서 이를 다시 시작하는데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으며, 쉐스 아모링 브라질 외무장관도 "이것은 심각한 퇴보"라고 개탄했다.

이에 따라 이미 당초 일정에서 2년이 늦어진 DDA 협상을 내년 7월 종료되는 미국의 신속처리 시한에 맞춰 연내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목표 역시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회의론이 증폭되고 있다.


최혁 주재네바 대사는 "가장 중요한 1단계 핵심이슈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한국으로서도 협상 중단은 좋은 소식이 아니며 앞으로 협상의 재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중단이 선언된 24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세계무역기구) 본부 정빈 회의실에서 국가 대표단 중 한 사람이 혼자서 앉아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의 청렴은 신성한 의무"

장관 이임하고 당 복귀하는 천정배 법무장관



열린우리당 복귀를 위해 청와대에 사의를 전달한 천정배(사진) 법무부 장관은 25일 "검찰의 청렴은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이며 이를 저버리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리는 퇴임식을 앞두고 배포한 이임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거대권력"인 검찰은 끊임없는 자기쇄신을 해야 하며 청렴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최근 언론에서 회자되는 법조비리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불신을 안겨줬다"면서 "우리 모두 작은 접대와 선물조차 부패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한 비리 근절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천 장관은 이어 "인권은 무조건적이고 최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수사나 형 집행은 인권침해 가능성에 근접해 있는 만큼 법무부가 이를 철저히 차단해 명실상부한 인권옹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임기간인 지난 1년을 회고하면서 인권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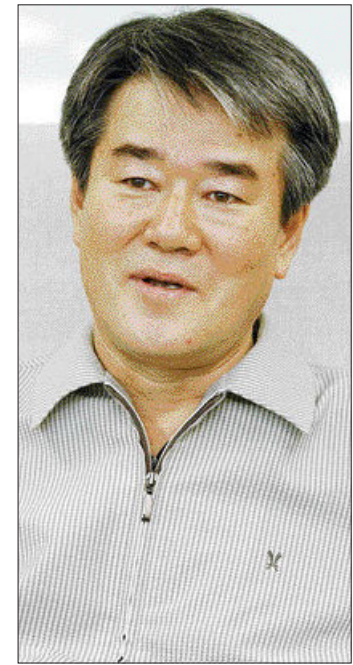
등 서민법제 추진, 탈세사범 엄단 방침 수립 및 양형기준제 도입 등을 법무부의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그는 "나와 내 부처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봉사자세를 가져야 한다. 저도 영원한 법무부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일을 적극 돕겠다"는 말로 이임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퇴임하는 천 장관의 후임자 인선은 다음 달 초로 예상되며 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될 때까지 법무부는 차관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연합뉴스

## 30년 공직 마감 청백리 이상호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이사장

#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공무원"

이상호 행정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이 최근 명예퇴직했다. 만 53세로 아직 공직을 마치기에는 빠르다. 30년 3개월의 영욕이 점철된 공직을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겠다"며 털고 떠난 것이다. 이 전 본부장은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이사장직을 맡아 새 길을 간다.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을 일컫는 말이다"고 나름대로의 선비관을 밝혔다.

지난 2000년 광주·전남시민단체로부터 청백리상을 받아 '청렴한 공무원'의 표상으로 통하는 그는 "사실 받아서는 안되는 상이었는데 주위에서 빠진다고 오해할까봐 받지 못해 받았다"며 겸손해 했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는 끝은 정신 탓에 본의 아니게 상사들과의 충돌도 잦았던 게 사실이다. 또 군수를 지낼 때 노모에게 인사청탁을 한 직원의 명단을 공개한 일이나 전별금을 전액 군 장학금으로 내놓은 일은 지금도 공무원 사회에 회자되고 있다.

이 같은 강직성은 자연스럽게

유통성 없는 '고집불통'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그는 '선비는 얼어 죽을지언정 결별은 썩지 않는다'는 말로 응대했다. 대쪽같은 성격 탓에 인사의 불이익도 상당히 받아 다른 동기(행시 18회)들에 비해 처처했다.

"공무원을 시작할 때 '높이 되겠다'거나 '정년을 마쳐야겠다'는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후배들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자는 생각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

### 자부심만큼 욕심버려야

공무원의 청렴성과 관련, 그는 세상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월급이 예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고, 자부심도 있는 만큼 다른 욕심을 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성세대와 사고가 다른 젊은 공무원들을 위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공무원은 누구나 자신이 소속한 단체의 장이라는 입장이 되어 사안을 기획하고 판단·결정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행정에 대한 안목이 달라진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이 신임 이사장은 보성 출신으로 곡성과 보성군수, 전남도 경제통상실장, 행정부 감사관과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

## "美 추가 쌀 시장 개방요구 결코 수용 않을 것"

###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 "FTA가 아니더라도 쌀시장은 이미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개방되고 있으며, 한미 FTA에서 추가적인 쌀 시장 개방은 미국이 이를 제의하더라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위험 능가하는 이익 있다면 그 길을 택해야 한다'는 제목의 한미 FTA 관련 기고문에서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UR(우루과이라운드)을 통해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관세

화됨으로써 국내 농산물 시장은 사실상 개방된 상태"라며 "쌀도 UR에서 결정된 최소시장접근수량(MMA) 만큼 매년 수입해 왔으며, 특히 2004년 쌀제출량에 따라 2013년까지 다시 10년간 관세를 유예하는 대신 매년 수입물량을 늘려나가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매일밤 8시부터 쏠! 쏠! 쏠! 애들은가라!!

## 혜은이

# 7월 26, 27일

부킹천국 100%

# 광주 상무 나이트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정통 성인나이트 만을 고집하는

전남·북시군 지사모집

www.party-food.co.kr

\* 홈페이지 한글주소 \*

파티외식산업

## 출장뷔페·도시락납품·위탁급식

- 회갑, 칠순·팔순 잔치, 병원개원식
- 성당·교회 결혼식 음식, 정년퇴임식
- 개업식·기념식

- ★ 시외·시내 출장전문
- ★ 체육대회·야유회
- ★ 식탁·의자 무료지원
- ★ 연회장 주차장 완비

# 파티외식산업

상담전화 광주본사 226-0085~7

- 목포지사 (061)284-1115
- 순천지사 (061)723-6003
- 전북·전주지사 (063)277-0083